

감각적 확실성과 지표적 표현의 문제

김 주 용*

- I. 서론
- II.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
- III. 지시 이론적 독법
- IV. 대안: 대용어 이론 독법
- V. 결론

〈요약문〉

『감각적 확실성』을 중심으로 헤겔로부터 지표사 이론을 읽어내려는 시도에는 최소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로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은 헤겔이 개별자를 언어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이해한다. 둘째로 지시 이론적 독법은 앞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언어가 대상을 지시한다는 고전적인 지시 이론적 생각을 헤겔로부터 읽어낸다. 셋째로 브랜던의 대용어 이론 독법은 헤겔에서 개별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옹호하면서도 고전 지시 이론적 발상과는 다른 설명 방식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앞의 두 가지 독법을 비판하고 세 번째 독법이 해석상으로 및 철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첫 번째 해석은 헤겔로부터 일종의 회의론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헤겔을 회의론자로 읽어내려는 그러한 시도는 기껏해야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성공적일 수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회의론은 헤겔의 입장을 논박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독법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적합한 해석이지만, 이 독법 또한 여전히 헤겔이 거부했던 주체와 객체, 정신과 세계 사이의 이원론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세 번째 해석은 첫째와 둘째 독법에서 각각 발생하는 회의론과 이원론의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개별자에 관한 지표적 지식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독법에 비해 강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검색어: 헤겔, 감각적 확실성, 지표사, 브랜던, 지시

* 서강대학교 철학과 석사

I. 서론

『정신현상학』의 첫 장은 개념 및 사유상의 어떠한 조작도 거부한 채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모순에 맞닥뜨리고 좌초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헤겔이 감각적 확실성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언어적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지각」의 논의 속에서 대상의 단일성과 속성들의 다수성 사이의 모순이 하나의 주어와 다수 술어 사이의 모순으로 재진술되듯 헤겔은 「감각적 확실성」에서도 적절한 언어 표현들을 도입하는데, ‘이것’, ‘여기’, ‘지금’, ‘나’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현대 언어철학의 논의 지평에서 지표사(indexicals) 내지 지표적 표현(indexical expressions)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일군의 학자들은 감각적 확실성의 모순을 드러내는 헤겔의 논증이 지표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헤겔이 지표사가 언어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지표사를 단순히 보편자와 등치했다고 비판한다. 비판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을 제기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해석상의 논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표사에 관한 헤겔의 논의를 받아들였을 때 개별자에 대한 파악이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이를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이라 부르겠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헤겔에 대한 비판자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보이고 이에 맞서 헤겔을 옹호하고자 한다. 옹호자들은 헤겔이 이미 언어 내에서 이름과 술어에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름이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언어를 실재와 연결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헤겔이 지표사의 직접 지시적 역할을 부정했다고 받아들일 이유 또한 없다. 이런 독해 방식에 따르면, 헤겔은 지표적 표현의 보편성을 논증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 개별자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표적 표현은 헤겔 철학 내에서도 사유와 세계, 언어와 실재 사이의 연관을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지시 이론적 독법’이라 부르겠다).

본고에서 개진되는 논점에 의하면, 「감각적 확실성」에서 모종의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논증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는 헤겔에 대한 오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시도는 기껏해야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타당할뿐더러, 그렇게 재구성된

논증은 헤겔을 철학적으로 공박하기에 충분히 강하지도 않다. 한편 지시 이론적 독법을 제기하는 옹호자들은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헤겔에서 개별자에 관한 인식이 (순수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옳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해석은 헤겔에 관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헤겔에게 불필요한 철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앞서의 두 입장을 비판한 후, 본고에서는 브랜덤(R. Brandom)이 제시하는 헤겔 해석을 적합한 해석으로서 옹호한다. 브랜덤의 해석(‘대용어 이론 독법’이라 부르겠다)은, 지시 이론적 독법에서처럼 언어-세계 사이의 대응 관계라는 발상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어떻게 헤겔 텍스트로부터 개별자 인식에 관한 설명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해석에 대해 강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는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II)과 지시 이론적 독법(III)을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대용어 이론 독법에서는 앞의 두 독법들이 지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보이는(IV)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II.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

감각적 확실성의 의식은 어떠한 개념적 파악(begreifen)도 없이 개별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auffassen)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어떤 개념적 기술도 거부하는 감각적 확실성의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헤겔은 ‘이것’을, 이것의 시공간적 형식으로서 ‘지금’과 ‘여기’를, 그리고 사념하는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나’를 택한다. 헤겔이 많은 표현들 중 지표사를 고른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감각적 확실성의 진리가 순수 존재라는 헤겔의 언급¹⁾에 의해 그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있다’(sein)는 사태의 단순한 존재 이상의 어떠한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용될 때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무언가가 가리켜진다는 점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지표사가 왜 의미를 지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이 대상의 속성을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¹⁾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3, Frankfurt 1986, 82-83쪽. 이하에서는 PhG로 약칭하여 본문에 쪽수와 함께 표기한다.

개별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능하다. **지표사의 의미는 그 지시체**라는 것이다. 이런 답변은 보편적 매개가 없는 대상과의 순수한 직접 대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표사를 간주하기에 충분하며, 지표사는 감각적 확실성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장치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²⁾

그런데 헤겔의 논의에 의하면 지표사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만다. 존재가 개별자가 아닌 보편적 존재 일반(Sein überhaupt)으로 드러나듯이, 지표사들 또한 보편자로 드러난다. 지표사가 지니는 보편적 성격은 감각적 확실성의 실패를 전개하고 기술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감각적 확실성의 진리가 그 자신의 기대와 달리 개별자가 아닌 보편자라는 점을 보이는 과정은 동시에 지표적 표현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컨대 감각적 확실성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수한 개별자인 **이것**을 직접적으로 포착한다고 믿지만, 이 이것은 단순한 개별자가 아니라 다수의 “비[非]이것”(Nichtdieses)을 부정하면서 존속하는 보편자임이 드러난다(PhG, 84-85쪽). 곧이어 진리의 또 다른 후보로 상정되던 ‘나’ 역시 그 어떤 개인이든 지시할 수 있는 무차별적 보편자라는 점이 증명된다. 이때 감각적 확실성의 진리를 기술하기 위해 차용된 ‘지금’, ‘여기’, ‘이것’, ‘나’라는 지표사들은 그때그때의 개별 대상을 의미로 지니기보다 그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는, 무규정적인 일반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헤겔은 이 일반성을 지표사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 일반의 본성으로 격상한다. 그는 감각적 확실성의 변증법으로부터, 사념(Meinung)은 개별적인 반면 언어는 보편적이라는 긍정적인 교훈을 이끌어 낸다. 감각적 확실성으로 대변되는 감각적 직접지의 옹호자들은 개별자를 말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자마자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근본적 간극에 부딪힌다.

우리의 사념은 [.....] 이 공허하고 무차별적인 지금과 여기의 맞은편에서 불필요하게 남을 뿐이다. (PhG, 86쪽)

2) 그리고 몇몇 철학자들은 실제로 순수 대면에 의해 얻어진 개별 감각 자료를 나타내는 진정한 이름의 후보로 ‘이것’, ‘저것’과 같은 지시사(demonstratives)를 주목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B. Russell,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London 1972, 29쪽 참조. 감각적 확실성에서 지시사가 러셀의 경우에서처럼 논리적 고유명(logically proper names)과 같은 이름으로 채택되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참고할 만하다. A. Graeser, Zu Hegels Portrait der sinnlichen Gewißheit, in: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rsg. von O. Pöggeler und D. Köhler, 2006, 43쪽.

그들이 현실적으로 이 한 장의 종이를 **인표하기**를 원한다고 해도—이들은 **인표하기를 원한다**—, 이는 불가능하다. 사념된 감각적 이것은, 그 자체로 보편자에 속하는 언어로서는 의식에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감각적 이것을 말하려는 현실적인 시도 가운데 부패해버릴 것이다. (PhG, 91-92쪽, 원저자 강조)

헤겔은 이 깨달음을 감각적 확실성 논박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여러 곳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제시한다.³⁾

여러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통해 헤겔이 개별자의 표현 불가능성을 주장했다고 이해한다.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개별자는 사념될 뿐 결코 인표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헤겔은 개별자를 형언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지표사를 포함하여 어떤 언어표현도 개별 대상을 지시 내지 의미할 수 없다는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논제**를 의미한다.⁴⁾ 특수한 개별자를 가리키는 듯 보이는 표현조차도 사실은 개별자가 아닌 “개별자 집합의 각각의 원소에 동등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⁵⁾되는 보편자이다. 특히 지표사의 경우 이 점은 중대한 함축을 지닌다. 앞서 보았듯 지표사는 애초에 어떤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 외에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으며, 따라서 지표사의 의미는 그것이 순수하게 지시하는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그런데 헤겔의 논증이 ‘이것’을 비롯한 지표사들의 단칭 지시(singular reference) 불가능성을 공언하는⁶⁾ 셈이라면, 지표사는 어떻게 해서 의미를 갖는가? 나아가 지표적 믿음들(예컨대 “나는 배가 고프다”, “이 꽃은 빨

3) 예컨대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5*, Frankfurt 1986, 126쪽; 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8*, Frankfurt 1986, §20, Anm. 참조. 이하에서 『논리의 학』은 WL로 약칭하여 본문에 권수 및 해당 쪽수와 함께 표기하고, 『엔치클로페디』는 Enz.로 약칭하여 본문에 권수 및 절 번호와 함께 표기한다.

4) 한편 보다 미묘한 독해 방식을 제시하는 해석자 또한 존재한다. 인우드(M. J. Inwood)는 개별자 지시가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개념적 기술에 의해 간접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과 ‘개별자 지시는 그 어떤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 모두를 헤겔로부터 읽어낸다. 그러나 인우드는 헤겔이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의 논제까지도 지지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지시 불가능성 독법의 옹호자로 간주될 수 있다. M. J. Inwood, *Hegel*, London 1983, 313-314쪽.

5) I. Soll, *An Introduction to Hegel's Metaphysics*, London 1969, 93쪽.

6) G. Plumer, *Hegel on Singular Demonstrative Reference*, in: *The Southwest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11, no. 2, 1980, 79쪽.

간색이다”)은 개별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가?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지표적 믿음을 통해 표현되는 감각적 지식은 특수하고 고유한 개체들에 대한 앎이 아닌 보편자에 대한 앎을 제공한다는 것이다.⁷⁾ 이 경우 지표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역시 앞의 가정과 다르게 된다. 지표사가 우리를 개별자가 아닌 보편자로 이끈다면, 지표사의 의미 역시 지시체가 아닌 프레게식 뜻(Sinn)이라고 해야 한다. 프레게에 의하면, 언어가 뜻을 지닌다는 것은 사유(Gedanke)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뜻 내지 사유는 개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표상(Vorstellung)과는 달리 객관적인 것이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소통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⁸⁾

그런데 이렇게 해석된 헤겔의 입장은 자못 납득하기 어려운 귀결로 우리를 이끈다. 첫째로,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논제는 반직관적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지표사를 사용하여 각자가 의도하는 개별적인 대상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예컨대 A가 “나는 배가 배고프다”는 지표적 문장을 발화했을 때, 발화자 자신 및 대화 상대자들은 문장 속의 ‘나’가 A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더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언어 사용 상황 속에서 ‘나’가 A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헤겔이 이끌어내는 결론에 따르면 지표사는 그 무엇이든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 사용 속에서 앞의 지표적 문장이 정확히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는 우리가 지표사를 사용하여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정면으로 반한다.⁹⁾ 둘째로,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논제는 언어와 세계의 연결 관계를 폐기하고 언어를 고립된 순환적 체계로 만든다. 이는 지표사가 단순히 세계 내의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 방식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플러머(G. Plumer)가 옳게 지적하듯, 지표적 지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유하는가를 고정하거나 규정

7) D. W. Hamlyn, *Sensation and Perception: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Perception*, London 1961, 141-142쪽.

8) G. Frege, On Sinn and Bedeutung, in: *The Frege Reader*, ed. by M. Barney, Oxford 1997, 154쪽. 여기서 우리는 사유가 객관적이고 소통 가능한 보편자라는 프레게의 아이디어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다. 지표사의 의미를 프레게적 뜻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뜻과 지시체에 관한 프레게의 의미론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9) G. Plumer, 같은 글, 85쪽; D. W. Hamlyn, 같은 책, 142-143쪽.

할 궁극적 장치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 장치는, 다른 모든 (가령 기술적) 지시와 식별[identification]이 어떻게 다양한 단칭 지시사에 의존하는 듯 보이며, 단칭 지시사가 모든 지시 틀의 토대인 듯 보인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이다.”¹⁰⁾ 지표사가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언어와 구체적 실재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세계 속의 무엇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게 되는 자기 정합적 추상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외부 세계 회의론은 명백히 헤겔이 승인할 법한 입장이 아니다.

지시 불가능성 독법의 지지자들은 헤겔이 추론 과정에서 모종의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한다. 특히 지표사와 같은 지시 표현을 다루는 과정에서 헤겔이 지표사 유형(type)과 지표사 개항(token)을 혼동했다는 지적이 제시된다.¹¹⁾ 포이어바흐는 이 점과 관련하여 후대 해석자들의 비판을 선취한다. “내 동생은 요한, 아돌프라 불린다. 그러나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요한, 아돌프이며 그렇게 불린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의 요한이 실재가 아니라는 점이 따라 나오는가? 그로부터 요한성[Johannheit]이 진리라는 점이 따라 나오는가? 감각적 확실성에게는 모든 낱말이 이름, 고유명[Nomina propria]이다.”¹²⁾ 포이어바흐의 지적은, 동생에게 사용된 ‘요한’이라는 낱말 개항의 의미가 ‘요한’이라는 낱말 유형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¹³⁾ 헤겔이 『감각적 확실성』에서 증명한 것은 ‘지금’ 등의 지표사가 밤, 낮, 오후 2시 등 여러 가지 개별 사례들

10) G. Plumer, 같은 글, 85쪽. 원저자 강조.

11) “Rose is a rose is a rose is a rose”라는 문장을 고려해보자. 우리는 이 문장에서 “rose”, “a”, “is”의 3개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단어들의 반복된 사용례를 모두 포함하여 10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전자를 유형, 후자를 개항이라고 부른다. 보다 소상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L. Wetzel, Types and Tokens,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by E.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8/entries/types-tokens/>, 2018. 최종 접속일: 2020.09.25.

12) L. Feuerbach, Zur Kritik der Hegelschen Philosophie, in: *Philosophische Kritiken und Grundsätze. Sämtliche Werke* 2, hrsg. von Friedrich Jodl, Stuttgart 1959. 185쪽.

13) 세부적인 언어철학적 논점과는 별개로 헤겔 비판을 통해 포이어바흐 자신이 의도했던 철학적 목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다음을 참조. 김현, 『신체화된 이성과 사유하는 몸—헤겔(G. W. F. Hegel) 사변철학에 대한 포이어바흐(L. Feuerbach)의 비판과 그의 ‘감성적 유물론을 중심으로—』, 『헤겔연구』 제44호, 한국헤겔학회, 2018; K. Löwith, Vermittlung und Unmittelbarkeit bei Hegel, Marx und Feuerbach, i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vol. 26, no. 1, 1972.

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표사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만을 가지고 각각의 지표사 개항 모두가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비약이다.¹⁴⁾ 만일 지표사가 술어처럼 어떤 대상의 속성을 기술한다면, 우리는 전자로부터 후자를 쉽게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표사는 술어와 다르다.¹⁵⁾ A가 “나는 배고프다”를 발화했을 때와 B가 “나는 배고프다”를 발화했을 때, ‘배고프다’라는 술어는 두 문장 개항 속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전자의 ‘나’는 A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나’는 B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헤겔이 이끌어내야 할 결론은 지표사의 의미가 보편자라는 점이 아니라, 지표사의 의미가 뜻과 같은 보편자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한다는 점이다.¹⁶⁾ 이런 이유에서 비판자들은 헤겔에게 의미론적 오류의 혐의를 씌운다.

이들의 비판은 헤겔이 개별성이나 보편성을 고착된 것으로 보았다는 가정에서라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개별자는 결코 보편적일 수가 없으며 보편자는 결코 개별적일 수가 없다는 주장을 헤겔의 철학에 귀속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의 반박은 옳다. 그러나 헤겔은 그러한 가정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판단에 관한 헤겔의 언급을 살펴보자.

주어는 오로지 그 술어 속에서만 규정되며, 혹은 주어는 오로지 술어 속에서만 주어이다. 주어는 술어 속에서 자기 내로 되돌아오며 이런 가운데 보편자라는 것이다.—그러나 주어가 독자적인 것인 한, 저 동일성은, 술어는 대자적으로 독자적인 존속이라기보다 그 존속을 오로지 주어 속에서만 지닌다는 관계를 지닌다. 술어는 주어에 **내재한다**는 것이다. (WL, II, 308쪽, 원저자 강조)

주어는 그 자체로 주어가 아니라 판단 속에서, 즉 술어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14) G. Plumer, 같은 글, 84-85쪽.

15) D. W. Hamlyn, 같은 책, 142쪽 또한 참조.

16) 프레게 자신이 지표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보다 복잡하다. 그는 같은 지표사가 상이한 맥락 속에서 다른 사유를 표현하거나, 서로 다른 지표사가 동일한 사유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찰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이 과연 지표사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는 또 하나의 복잡한 논쟁거리이다. 본고의 11번 각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프레게의 뜻 개념만을 채택하고 프레게의 지표사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주어이다. 한편 술어 역시 그 자체로 술어가 아니라 주어와의 관계 속에서만 술어로서 존속한다. 주어와 술어의 상호적 관계가 지니는 함축은 개별자-보편자 관계 속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¹⁷⁾ 개별자는 개별자이고 보편자는 보편자일 뿐이라는 우리의 상식과 달리, 헤겔에 따르면 판단에 대한 고찰은 주어와 술어 각각 모두 개별자이자 보편자로 드러난다는 발견으로 우리를 이끈다. 주어는 술어에 의해 규정되는 추상적 개별자이지만, 술어를 속성으로서 자기 안에 포괄하는 실체라는 점에서는 보편자이다. 한편 술어는 개별자인 주어를 규정하는 보편자이지만, 주어가 지니는 수많은 속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는 개별자이기도 하다(WL, II, 312쪽, 314쪽). 이것이 『논리의 학』에서 「판단」의 문제의식을 구성하며, 따라서 해당 장의 과제는 판단 속에서 주어-술어가 드러내는 모순을 극복하고 양자의 통일을 보다 참된 형태로 전개하는 일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헤겔에서 개별자와 보편자가 고립되어 존속하지 않고 철저히 상관적인 개념쌍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낱말, 하나의 대상은 그저 보편자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편자가 되려고 하고 개별자가 되기도 한다.

개별자-보편자의 상관성에 관한 통찰은 앞서 중대한 결점으로 대두되었던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논제를 pingzang히 사소한 지위로 축소한다. 비판자들은 이제 헤겔이 개별자 일반에 대해 지시 불가능성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유되고 언표될 수 있는) 모든 개별자는 동시에 보편자이기도 한데, 이런 보편적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헤겔에게 명백히 언표 및 지시할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¹⁸⁾ 이런 대상들의 언표 불가능성까지도 헤겔에게 귀속

17) 다음의 구절도 참조할 수 있다. “일단 주어는 그 생각에 따르면 개별자이며 술어는 보편자이다. 그런데 판단이 더 나아가 전개되는 가운데, 주어는 순전한 직접적 개별자 아니고 술어는 추상적 보편자가 아니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 국면에 주어와 술어는 특수자이자 보편자라는 전자의 의미, 그리고 특수자이자 개별자라는 후자의 의미 또한 지니게 되는 것이다. 판단에서 양쪽의 이 의미 전환은, 주어와 술어라는 양자의 명칭 아래에서 일어난다.”(Enz., I, §169, Zus.)

18) 그 근거는 다소 다르지만, 이처럼 헤겔이 개별자에 대한 언어적 파악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L. Siep,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 Daniel Smith, Cambridge 2014, 75쪽, R. Stern,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to Hegel and the Phenomenology of Spirit*, London 2002, 50쪽 참조.

시키는 일은 명백히 부적절한 이해가 될 터이다. 굳이 지시 불가능성 논제를 헤겔로부터 읽어내고자 한다면, 감각적 확실성의 변증법은 **순수**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논증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보편성으로부터도 일절 고립된 채 그 자체 고립되어 존속하는 개별자란 없다는 점은 헤겔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때 배제되는 개별자란 일상적 의미에서 언어를 이용해 지시되는 개별자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언어 사용 속에서 지시되는 개별 대상이란 항상 여러 개별자를 포함하는 보편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나무나 하나의 소금을 지시하고 기술할 수 있지만, 이때 파악된 나무는 여러 나무들 중의 하나인 개별자일 뿐만이 아니라 공간 및 시간 속에서 지속하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자기 안에서 통일시키고 있는 보편자이기도 하다.¹⁹⁾ 따라서 지시 불가능성은 어떤 기술도 불가능하며 순수하게 가리킬 수만 있는, 예컨대 감각자료 이론가들이 주창했을 순수 개별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순수**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논제는 우리의 실제 언어 사용에 배치되는 결론을 전혀 내놓지 않으며, 오히려 보다 적절한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지금’, ‘여기’, ‘이것’이 보편성 없이 순수 개별자를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얻는다는 생각을 긍정한다면, 우리는 지표사에 관해 모종의 원자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²⁰⁾ 지표사 원자론은 예컨대 “지금은 밤이다”와 같은 문장이 극히 미세한 찰나에 대해 귀속되는 믿음이라고 간주한다. 이 입장은 가장 짧은 찰나 t 를 상정한 후, t_1 , t_2 , t_3 , …… 등 무수히 많은 원자 시점들의 연쇄를 통해 “지금은 밤이다”를 설명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지표사 원자론은 지표사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무수한 원자 시점들은 서로 어떤 필연적 연관도 맺고 있지 않다. 지표사 원자론은 ‘지금’ 유형의 어떤 보편적 의미도 거부한 채

19) 이것이 지각을 감각적 확실성과 구별하면서도 지각을 여전히 감각적인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은 비[非]이것 혹은 **지양된 것으로** 정립되며, 그에 따라 이것은 무[無]가 아니라 규정적 무 혹은 **하나의 내용에 대한 무**, 다시 말해 **이것에 대한 무**이다. 그런 까닭에 감각적인 것 자체는 아직 성립하지만, 이는 직접적 확실성 속에서 존재하던 대로의 사념된 개별자가 아니라 보편자, 혹은 **속성**으로서 규정된 것으로 성립한다.”(PhG, 94쪽, 원저자 강조)

20) 이하에서 기술되는 지표사 원자론과 그에 대한 반박은 프레게적 ‘사유’에 대한 에반스(G. Evans)의 옹호 논증을 변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G. Evans, *Understanding Demonstratives*, in: *Collected Papers*, ed. by Antonia Phillips, Oxford 1985, 309-311쪽.

‘지금’ 개항만으로 ‘지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매 순간 발화될 때마다 다른 시점을 지시하므로 끝없이 다른 의미를 지니며, ‘지금’ 개항들 상호 간에는 어떤 의미 연관도 없다. 더구나 우리는 한 찰나에 믿었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결코 다시 믿을 수 없게 된다. ‘지금’에는 어떤 보편적 뜻도 없으므로, 하나의 찰나를 무매개적으로 포착할 뿐 발생하자마자 곧 소멸하는 원자 시점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어떤 수단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은 우리의 실제 언어 사용과 큰 괴리를 보이며, ‘지금’이 포함된 지표적 믿음을 상호 간에 이해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버린다. 지표사의 의미를 대상과 동일시하는 지표사 원자론의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t*에 대상을 붙잡음’이라는 정적인 개념이 본질적으로 ‘*t*부터 ‘*t*까지 대상의 궤적을 따라감’이라는 동적인 개념의 추상이라고 간주해야 한다.”²¹⁾ 이제, 같은 종류의 반박이 ‘여기’, ‘이것’, ‘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헤겔의 입장이 지표사 원자론의 입장보다 우리의 언어적 직관에 잘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III. 지시 이론적 독법

앞 장에서 제시된 비판은 헤겔이 개별 대상에 대한 지표적 파악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극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한편, 헤겔에게 지표적 표현을 통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헤겔적인 지표사 이론을 구성하는 데에는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터이다. 본 장에서는 그 중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해리스(H. S. Harris)는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에 의거한 비판 가능성을 의식하고, 그에 맞서 헤겔을 위한 간략한 변론을 행한다. 해리스의 요지는, 헤겔의 논증은 언어 표현이 실재 세계의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을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처럼 결론 내린다. “언어 외적 지시가 언어적 의

21) G. Evans, 같은 글, 311쪽.

미와 진리에 관한 이론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 우리는 ‘보편적 이것’에 관한 이상한 어법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²²⁾ 나아가 그는 “의미 이론이 필수적으로 지시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²³⁾고까지 말한다.²³⁾ 해리스의 변론은 짧지만, 헤겔의 지표사 이론을 구성하는 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방향이란 바로 헤겔에게 **지시 이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리스는 지표사의 보편성에 관한 논의를 “언어적 의미와 진리에 관한 이론”의 층위에 귀속시키면서도, 지표사가 언어 밖에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 또한 긍정한다. 이때 지시란 언어와 언어 외적인 것, 다시 말해 언어와 실재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언어와 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는 언어의 의미론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의미론에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요소를 이룬다. 어떤 점에서 그러는가?

그에 대한 답은 드브리스(W. deVries)로부터 찾을 수 있다. 드브리스는 해리스와 유사한 종류의 입장을 견지한 채 이 논제를 보다 상세한 형태로 발전시킨다. 드브리스는 일정 부분 헤겔에게 러셀과 같은 언어-세계 대응 관계를 귀속시킨다. 러셀은 “단칭 지시가 우리의 지식이 세계와 정말로 유착되어 있음을 보장”²⁴⁾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러셀은 지시 표현들의 의미가 그 지시체라는 지시적 의미 이론을 견지한다. 물론 앞서 보았듯 헤겔은 언어가 보편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언어의 의미와 지시체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거부한다. 드브리스의 이해에 따르면, 헤겔은 지시체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언어가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만으로는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아무런 인식적 가치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언어와 대상의 지시 관계는 여전히 전제되어야 한다. “헤겔에 의하면, 이름은 실로 우리의 사유를 세계와 연결하는 데 역할을 수행한다.”²⁵⁾ 그렇지 않다면 언어는, 앞 장의 비판자들이 헤겔에 대해 주장했던 것처럼 세계와의 접촉을 잃은 무의미한 체계로 남은 채 공회전할 것이다.

드브리스는 헤겔이 이름에 관한 밀주의적 이론(Millian theory of names)²⁶⁾을

22) H. S. Harris, *Hegel's Ladder I: The Pilgrimage of Reason*, Indianapolis 1997, 217쪽. 원저자 강조.

23) H. S. Harris, 같은 책, 217쪽.

24) W. DeVries, Hegel on Reference and Knowledge,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vol. 26, no. 2, 1988, 305쪽.

25) 같은 글, 305쪽.

채택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해석을 구체화한다.²⁷⁾ 드브리스의 해석에 따르면, 헤겔은 모든 이름들이 (프레게적인) 뜻(내포) 없이 지시체(외연)만을 지닌다는 입장을 지녔다. 드브리스가 전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학』에서 헤겔이 이름에 관해 언급했던 구절들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완전히 규정적인 무언가[etwas vollkommen Bestimmtes]를 표현하기를 사념한다. 언어가 오성의 작품으로서, 개별 대상의 이름 이외에는 오로지 보편자를 언표할 뿐이라는 점은 간과된다. 그러나 개별 이름은, 보편자를 표현하지 않고 순전히 정립된 것, 자의적인 것으로 현상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이는 고유명들[Einzelnamen]도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주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동일한 근거에서 그렇다. (WL, I, 125-126쪽.)

이 구절에서 헤겔은 고유명과 여타 표현들의 성격을 구분한다. 고유명이 아닌 표현들은 모두 보편자를 언표하며, 따라서 이 표현들의 의미는 그것이 표현하는 보편적 사유이다. 한편 고유명은 보편자가 아닌 개별자이다. 그러나 고유명은 그 대신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드브리스의 해석에 따르면, 술어가 주어에 오는 사물과 사태의 속성을 기술하는 반면, 이름은 개별자로서 순수하게 지시를 통해 언어와 세계의 연결을 고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한편 지표사는 고유명과 달리 보편자로 간주되지만, 이 보편성은 고유명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식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그저 지시 기능만을 지닐 뿐이다. 고유명과 달리 지표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어떻게 지표사는 보편성을 지니면서 개별자를 지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표사의 두 가지 의미 층위에 대한 카플란의 구별을 참조함으로써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지표사는 ‘성격’(character)이라 불리는 어휘적 의미(lexical meaning)를

26) 이름에 관한 밀주의적 이론은, 이름이 내포를 지니지 않고 외연만을 지닌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컨대 인천의 한 지명인 박촌(朴村)은 예전에 박씨 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박씨들의 집성촌이라는 성격을 잃어버린 채 인천의 한 행정구역을 가리킬 뿐이다. 이때 ‘박촌’이라는 이름은 “박씨들의 마을”이라는 기술구로 표현될 수 있는 내포를 지니지 않은 채 인천의 한 행정구역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외연만을 지닌다.

27) W. DeVries, 같은 글, 300-301쪽.

지닌다. 예컨대 지표사 ‘나’의 성격은 “‘나’는 화자를 지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제시된 ‘나’의 의미는 ‘나’의 사용 규칙을 규정하는 의미이다. ‘나’의 성격은 언어적 규칙으로서, ‘나’ 개항이 무엇을 지시하든 유효하며 불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지표사는 성격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별다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공허한 보편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표사는 그 개별적인 사용례 속에서, 이를테면 A라는 화자가 ‘나’를 발화한다는 구체적인 맥락과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A와 같은 개별자를 의미할 수 있다. 이때 성격이 상이한 맥락과 결합하여 산출되는 다양한 지시체들을 우리는 ‘내용’(content)이라 부를 수 있다.²⁸⁾ 이렇게 지표사의 성격과 내용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지표사가 보편성을 지니는 한편 구체적 맥락 속에서 각각의 개별자를 확정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지표사와 고유명은 다른 특성을 지니지만, 순수한 지시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종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과 지시사는 스펙트럼의 반대되는 극들이다. 이름은 하나의 대상을 지시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의 대상만을 지시할 수 있지만, 지시사는 어떤 것이든 지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양자 모두 중요한 인식적 내용을 지니지 않으며, 양자 모두 대상에 대한 내재적인 특징화도 제공하지 않는다.”²⁹⁾ 헤겔에게 “순수한 지시 표현들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으며**[uninformative] 공허하다”고 드브리스는 결론 내린다.³⁰⁾ 그리고 우리가 개별자를 언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고유명과 지표사가 개별자와의 대응 관계 속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시 이론적 독법은 언어가 보편성을 담지한다는 헤겔의 주장을 긍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외부 세계 회의론의 문제를 헤겔에게 부담 지우지 않은 채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해명의 시도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보다 해석적 및 철학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 언어가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며 인식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 또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해석은 지시 이론의 도식을 헤겔에게 귀속시

28) D. Kaplan, Demonstratives: An Essay on the Semantics, Logic,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of Demonstratives and Other Indexicals, in: *Themes from Kaplan*, ed. by J. Almog, J. Perry and H. Wettstein, New York 1989, 500-507쪽.

29) W. DeVries, 같은 글, 303쪽.

30) 같은 글, 300쪽. 원저자 강조.

킨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물론 이들은 헤겔이 언어의 의미를 지시체와 동일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³¹⁾, 지시 이론적 독법의 옹호자들은 언어 밖의 지시체가 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필수 요인이라는 생각을 고수한다. 지시 이론의 입장은 한 쪽에 언어를, 다른 한 쪽에 실재를 상정한 후 둘의 연결 관계를 지시 관계로 해명함으로써 언어의 의미와 지식의 가능성을 규정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지시 표현이 언어 내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지시 표현이 실제 속 대상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언어는 세계와 고립된 채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지시 이론은 언어가 언어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일종의 표상이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고 상정한다.

이런 지시 이론의 그림은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비판했던 인식 도구설과 전제를 공유한다. 인식 도구설은 사유를 인식 도구로서 먼저 검토하고 그 능력과 한계를 인지한 이후에 비로소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식 도구설은 헤겔이 지적하듯 인식을 그 적용 대상과 떨어뜨려 놓고서 출발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유와 존재의 간극을 전제한 뒤 둘의 연관을 해명하려고 하는 인식 도구설과 같은 이유로, 지시 이론은 언어와 실재의 괴리를 사전에 가정한 다음 양자를 지시라는 연관 속에서 해명하려고 한다. 헤겔은 이런 종류의 입장이 매우 의심스러운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오류에 대한] 염려는 인식에 대한 **표상들을 도구들과 매개**에 대한 표상으로 전제하며, **우리 자신과 이 인식 사이의 구별**도 전제한다. 그러나 **한편에는** 절대자가 서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인식이 독자적으로 절대자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실제적인 것으로 서 있다는 입장, 혹은 따라서, 절대자의 밖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진리의 밖에 있는 인식이 그럼에도 참된 것이라는 입장은, 오류에 대한 공포로 일컬어지는 것이 오히려 진리에 대한 공포라는 인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PhG, 70쪽, 원저자 강조)

『오성』에서 제시되는 초감각적 세계에 관한 헤겔의 논의는 지시 이론적 그림이 가정하는 사유와 존재, 언어와 실재의 간극이 왜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인지를 명시적으로 논증한다. 사유 너머의 존재를 대표하는 초감각적 세계는

31) 이들은 헤겔이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의 연관 속에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다. 예컨대 W. DeVries, 같은 글, 300쪽.

의식이 얻는 인식의 궁극적인 출처이면서도, 인식의 내용과는 다른 무언가로 상정된다.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이런 생각은 회의론으로 귀결된다. 의식은 자기에게 현상하는 바의 세계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게 되는 까닭이다. 현상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초감각적 세계와 우리의 사유에 의해 구성된 현상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해명하기란 매우 힘들어진다. 사유 내의 개념들은 기껏해야 현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타당하게 쓰일 뿐, 이러한 개념들을 동원하여 세계 자체와 현상 사이의 관계를 해명할 경우 사유의 월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시 이론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지시 개념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지시 이론에 의하면 지시는 언어가 무의미한 기호의 나열이 아닌 세계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이 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지시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일은 언어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시를 언어 체계 내에서 성립하는 개념으로 상정할 경우, 그것이 언어를 넘어 언어와 실재 사이의 관계를 적법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³²⁾ 그리고 이 관계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채 불가사의로 남는다면, 과연 우리의 언어가 세계와 성공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된다.³³⁾

헤겔이 비판하듯 우리의 사유 너머에 존재하는 초감각적 세계란 공허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내면은 의식에게는 **순수한 피안인**데, 의식은 아직 내면

32) 대표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가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 관해 기술하는 언어는 다시금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언어는 진정으로 유의미한 언어라고 볼 수 없다. “[.....]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을 통해—나의 명제들을 딛고서—나의 명제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 버려야 한다.)” L.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 책세상, 2006, §6.54.

33) 지시 이론의 이원론적 가정은 크게는 ‘표상주의’라는 큰 틀에 속에서 널리 공유되는 가정이며, 한편에는 회의론, 다른 한편으로는 독단론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표상주의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헤겔적 관점에서 비판하려는 시도로는 윤유석, 『표상주의, 변증법, 역사성—헤겔의 경험 개념에 근거한 표상주의 비판—』, 『철학사상』 제61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6 참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면은 **공허**한데, 내면은 현상의 무일 뿐이며 긍정적으로도 단순한 보편자일 뿐이기 때문이다.”(PhG, 118쪽, 원저자 강조) 초감각적 세계의 힘과 현상 사이의 관계가 사유에게 근본적으로 불가지하다면, 현상이 유발되는 궁극적인 출처를 초감각적 세계에 귀속시켜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진다.³⁴⁾ 결국 세계는 현상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며, 현상이야말로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말해야 한다. “내면 혹은 초감각적 피안은 **발생한[entstanden]** 것이다. 내면은 현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현상은 내면의 매개이다. 혹은, **현상은 내면의 본질**이자 실은 내면의 충만인 것이다.”(PhG, 118쪽, 원저자 강조) 진정한 세계는 이미 우리의 사유 속에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대로의 세계이며, 우리의 인식을 감각적 세계에 국한하고 그 배후에 또 하나의 세계를 설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종종 초감각적인 것은 현상이 **아니**라고 말해지지만, 여기서 현상은 현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체 실재적인 현실로서 **감각적** 세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PhG, 119쪽, 원저자 강조) 이러한 고찰들을 거친 후 헤겔이 이끌어내는 결론은,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진리가 의식과 판이한 무언가가 아니라 의식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다. “타자에 대한 의식, 대상 일반에 대한 의식은 말하자면 그 자신 필연적으로 **자기의식**, 자기 내로의 반성,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다. 지금까지 의식의 형태들에게 진리란 사물, 혹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자였는데, 이 의식 형태들의 필연적 진전은 사물에 대한 의식만이 오로지 자기의식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자기의식만이 저 의식 형태들의 진리라는 점을 표현한다.”(PhG, 134쪽, 원저자 강조)

위의 비판은 그대로 지시 이론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박으로서 작동한다. 언어 너머에 상정되는 비언어적 실재란 공허한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지시라는 불가해한 관계를 통해 언어의 의미의 궁극적 원천을 초(超)언어적 실재로 가정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세계의 참다운 본질은 언어의 배후에서가 아니라 이미 언어화된 채 나타난다. 그리고 지시 이론적 이원론을 거부할 때 비로소 언어와 실제의 상호 연관성을 다음처럼 보다 적절히 이해할 길이 열린다. 세계는 언어 속에

34) K. R. Westphal, Hegel's Phenomenological Method and Analysis of Consciousness, in: *The Blackwell Guide to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ed. by K. R. Westphal, London 2009, 22쪽 또한 참조

서 사유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비로소 세계이며, 사유는 고립된 기호나 심상의 놀이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세계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활동이다. 헤겔 철학의 핵심 논제인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역시 급진적 이원론 비판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를테면 양자의 간극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논리학에서 개진되는 사유의 기본 형식들은 비로소 존재의 기본 형식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³⁵⁾ 참된 철학의 관점에서 **대응**은 진리의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직관** 혹은 **지각의 올바른, 표상**과 대상의 일치를 **진리**라고 이름하는 자는, 최소한 철학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표현도 지니고 있지 않다.”(WL, II, 318쪽, 원저자 강조) 이상의 이유로, 헤겔에게 지시 이론을 귀속시키는 독법은 헤겔이 여러 곳에서 거부하는 입장을 헤겔에게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해석상으로 부적절하며, 헤겔이 비판한 바로 그 이유에서 철학적으로 부적절하다.

IV. 대안: 대응어 이론 독법

지표적 표현의 의미가 순전히 보편자와도 등치될 수 없고, 대상과의 대응이라는 지시 이론적 그림을 도입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헤겔의 입장에서 지표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 가지 적합한 설명을 우리는 브랜덤의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단, 브랜덤은 헤겔에게 지표적 표현이 단순히 보편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과 자신의 해석을 변별하고 있다.³⁶⁾ 그에 따르면, 헤겔로부터 개별자 인식 불가능성과 같은 ‘나쁜 논증’을 읽어내는 독해는, 두 종류의 직접성에 대한 헤겔의 구별을 간과했기 때문에 등장한다. 이 구별이란 인식작용의 직접성과 인식내용의 직접성이다. 확실히 헤겔은 감각적 확실성에서 성립하는 인식적 권위가 하나의 보편적인 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실의 감각적 확실성은 이 순수한 직접성일 뿐만 아니라

35) S. Houlgate, *The Opening of Hegel's Logic: From Being to Infinity*, West Lafayette: Indiana 2006, 115-117쪽.

36) R. Brandom, *A Spirit of Trust: A Reading of Hegel's Phenomen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2019, 115-118쪽.

이 직접성의 예시[Beispiel]이다.”(PhG, 83쪽, 원저자 강조) 각각의 이것들은 감각적 인식이라는 같은 유형의 인식작용을 예화하는 하나의 개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이것 개항들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모두 보편자라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비록 ‘이것’이 그 어떤 특수한 사물이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표현 유형이지만, ‘이것’은 그 사물들에 **술해지지** [predicated] 않는다. 그것은 사물들을 **기술하지** [describing] 않는다. 그것은 사물들이 속하는 **개념**이나 사물들이 공유하는 **속성**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자가 아니다.”³⁷⁾ 같은 종류의 내용을 지니는 술어 개항들과 달리, 지표사 개항들은 같은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상이한 내용을 지닐 수 있다. 브랜덤은 이 점에서 카플란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격-내용 구분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성격은 지표사에 내용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일 뿐, 지표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표사 유형의 보편성만을 가지고는 어떻게 개별자인 내용이 보편자인 사유 속에서 보존될 수 있는지 해명하기 어렵다. 해리스와 드브리스는 지표사가 맥락 속에서 언어 외적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물음에 대답할 수 있었으나, 앞 장에서 보았듯 우리는 지시 이론이 해석적 및 철학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설명으로 채택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 고전적 지시 이론의 틀을 거부한다면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브랜덤은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논증을 헤겔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감각적 확실성의 변증법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 논증을 읽어내는데, 그 중 본 논의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회상적 반복가능성(recollective repeatability) 논증이다. 지표사 개항은 두 번 다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 불가능한 유일자이다. 예컨대 내가 집을 지목하며 ‘이것’이라고 말한 조금 뒤에 다시 같은 집을 가리키며 ‘이것’이라고 말해도, 두 경우는 동일한 ‘이것’ 개항이 아니라 별개의 사용례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감각적 포착활동이 인식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다시 말해 감각적 확실성이 포착한 바를 도대체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지표사 개항에서 포착된 내용은 언어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언급될 수 있어야 한다. 브랜덤에 의하면 헤겔은 그 설명의 개요를 다음

37) 같은 책, 117쪽.

처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리킴[Aufzeigen] 속에서 하나의 운동과 다음과 같은 운동의 경과만을 본다. 1. 나는 지금을 가리키며, 이 지금은 진리로 주장된다. 그러나 나는 지금을 있었던 것으로서 혹은 지양된 것으로서 가리킨다. 그리고 2. 지금 나는 지금이 **있었음** 즉 지금이 지양되었음을 두 번째 진리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있었던 것은 있지 않다. 나는 두 번째 진리인 있었음 혹은 지양되어 있음을 지양하고, 이와 더불어 지금의 부정을 부정하여 지금이 있다는 처음의 주장으로 되돌아간다. (PhG, 89쪽, 원저자 강조)

브랜덤이 보기에 이 구절은 지표사를 통해 얻어진 직접적 인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양되어 지속적인 것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³⁸⁾ 첫 번째 단계에서 현재에 위치하던 하나의 지금 개항은 부정되어 두 번째 단계에서 과거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이 과거는 다시 부정되어 지금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자기 내로 복귀한 첫 번째의 것은 최초로 있었던 **직접적인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타재[他在] 속에서 그것으로 지속하는 **자기 내로 복귀한 것** 혹은 **단순한 것이다.**”(PhG, 89쪽, 원저자 강조) 지금은 과거의 것이 되었으므로 감각적 직접성에 더 이상 호소할 수 없으며, 이제는 “있었던 것이자 소멸된 종류의 것으로서”³⁹⁾ 인식적 권위를 지닌다. 과거는 이제 포착이 아닌 회상(recollection; Erinnerung)의 대상인 것이다. 결국 헤겔이 감각적 확실성의 가리킴 속에서 지금이 과거 속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지양된다는 점을 주장할 때, 그는 개별적 포착 활동이 보편적 회상 활동을 전제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언어철학의 용어로 재진술한다면, 지표사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지표사 개항의 일회적인 내용을 보존하여 필요할 때 언어를 통해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회상하는 정신의 활동에 언어적으로 해당하는 표현은 대용어(anaphora)이다. 대용어란, 담화 속에서 선행된 표현의 의미를 계승하는 표현을 말한다. 예컨대 “나는 어제 『논리의 학』을 읽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에서 대용어 “그것”의 의미는 선행어 “『논리의 학』”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다. 이처럼 대용어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발화되었던 표현을 소멸시키지 않고

38) 같은 책, 126-127쪽.

39) 같은 책, 127쪽. 원저자 강조.

개별 맥락을 넘어 그 의미를 받아 전달하는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브랜덤은 무상한(vergänglich) 개별자들이 회상 속에서 지양된다는 헤겔의 논제를 다음처럼 재정식화한다. “직시어[deixis]는 대용어를 전제한다.”⁴⁰⁾

이제 관건은 대용어가 어떻게 순간 속에서 소멸하는 지표사의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지표사는 철저히 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특유한 접근 방식 탓에 소통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예컨대 헤겔에 의해 발화된 “나는 점심을 먹었다”가 표현하는 사유는 오직 발화자인 헤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사유를 표현하고 있다. 헤겔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표현 가능한 “헤겔은 점심을 먹었다”와 달리, ‘나’를 통해 헤겔을 의미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통틀어 오로지 헤겔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헤겔’이라는 고유명이나 헤겔이 지니는 속성들을 기술하는 기술구(가령 “『정신현상학』을 집필한 독일인”)의 경우, 항상 동일하게 특정되면서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남는다. 간단한 사고실험을 통해 이 점을 논증할 수 있다. 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속성을 지니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름까지 똑같다고 해보자(편의상 A와 B로 구별해서 칭하겠다). A는 비지표적 표현으로는 B를 배제한 채 오로지 자신만을 특정하여 의미하기가 힘들다. 그가 자신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구와 이름은 모두 B 또한 특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인칭 지표사 ‘나’는 기술구와 고유명이 수행하지 못하는 이 기능을 행할 수 있다. A가 발화한 “나는 배가 고프다”는 오로지 A에 대한 사유를 표현하지 B에 대한 사유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나’라는 지표사에는 고유명이나 기술구로 대체될 수 없는 의미가 들어 있다.⁴¹⁾ 문제는 ‘나’를 통해 표현되는 동일한 사유를 타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인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문장을 표현하거나 ‘나’를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나에게 대한 나의 사유가 과연 타인에게 공유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다른 지표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직접 분필을 보고 “이것은 분필이다”를 발화한 사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 발화자가 표현하는 것을 똑같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는 믿음 귀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처럼 재진술될 수 있다. A가 발

40) 같은 책, 125쪽.

41) 이 논증은 카플란의 논의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D. Kaplan, 같은 글, 531쪽 참조.

화한 문장을 타인이 듣고 대화 속에서 표현하려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 귀속 문장을 통해 A에게 믿음을 귀속(ascibe)시킬 수 있다. A는 지표사 ‘나’의 의미를 선행어로 받는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A는 꿈이 그를 공격하려 한다고 믿는다.

위의 믿음 귀속 문장은, A에게 “꿈이 그를 공격하려 한다”에 내용상 상응하는 믿음을 귀속시킨다. 그런데 “꿈이 그를 공격하려 한다”에 애매성이 발생한다. 이 문장만으로는 A가 실제로 승인한 문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세 가지 문장 중 A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결정할 수 없다.

- (1) 꿈이 나를 공격하려 한다.
- (2) 꿈이 A를 공격하려 한다.
- (3) 꿈이 떡갈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여자를 공격하려 한다.

앞서 말했듯 지표사와 비지표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위 세 문장은 서로 다른 문장이다. “나”와 “A”와 “떡갈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여자”가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세 가지 믿음 중 무엇이 A에게 귀속되어야 할지는 불확실하다.

브랜덤은 같은 것을 말하기(samesaying)와 소통을 동일시하는 암시적인 전제를 비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⁴²⁾ 지표적 믿음에 의해 표현된 사유와 정확히 같은 사유를 타인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로부터 바로 해당 사유의 소통 불가능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브랜덤에 의하면, “나는 배가 고프다”에 의해 표현된 사유는 “너는 배가 고프다”처럼 같은 적절한 대응 관계에 있는 다른 사유를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 가능한 사유들끼리는 “뜻 혹은 내용의 동일성보다 약하”지만 “순전한 공지시[coreference]” 관계보다는 훨씬 강한 연관을 형성한다.⁴³⁾

42) R. Brandom,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 Discursive Commitment*, Cambridge: Massachusetts 1994, 561-562쪽. 이 구분 자체는 맥도웰(J. McDowell)의 구분을 차용한 것이다.

동일한 사유를 표현하지 않고도 지표적 믿음의 정보를 충분한 정도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브랜덤은 준(準)지표사(quasi-indexical)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⁴⁴⁾ 이 준지표사는 ‘a^{⟨t⟩}’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이 표현은 ‘a’가 선행어 ‘t’의 대응어라는 점을 나타낸다. 예컨대 우리가 (1)-(3) 중 정확히 (1)을 A에게 귀속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음처럼 말할 수 있다.

A는 곰이 그^{⟨t⟩}를 공격하려 한다고 믿는다.

이때 준지표사 ‘그^{⟨t⟩}’는 가능한 수많은 믿음들 중에 정확히 (1)을 골라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표적 믿음 (1)과 충분히 강력한 연관을 형성한다. “곰이 그^{⟨t⟩}를 공격하려 한다”는 (1)과 정확히 같은 사유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주어에 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사유들 중 (1)과 정확히 대응하기 때문이다. 준지표사는 다른 지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A가 어떤 토끼를 보고 지시사 ‘이것’을 사용하여 “이것의 털은 잿빛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토끼라는 사물 자체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가능한 많은 믿음들이 상존하지만(“상수리나무 밑에 있는 토끼의 털은 잿빛이다”, “벽스의 털은 잿빛이다”, 등등), 준지표사를 이용하여 “A는 그것^{⟨이것⟩}의 털이 잿빛이라고 믿는다”라는 믿음 귀속 문장을 만든다면, 공지시하는 다른 믿음들을 모두 배제하고 정확히 지표적 믿음을 A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런 귀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준지표사가 지표사의 특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A의 대화 상대자들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징표이다. 얼핏 브랜덤이 인위적인 개념적 장치를 도입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준지표사는 일상적인 표현들로 무리 없이 환언(換言)될 수 있다.⁴⁵⁾ 우리는 가령 준지표사 기호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A는 곰이 그를,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하려 한다고 믿는다.

43) 같은 책, 562쪽.

44) 같은 책, 564쪽.

45) 같은 책, 565쪽.

이때 문장 속의 삽입절은 선행어가 무엇인지 명시함으로써 믿음 귀속의 애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는 일상언어에서 지표사의 다 맥락적 소통 기능성의 실마리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다. 영어나 독일어의 비(非)1인칭 재귀대명사 ‘yourself’, ‘him/herself’, ‘dich’와 ‘sich’ 등이 예시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1)에 해당하는 믿음 귀속 문장을 만들기 위해 다음처럼 표현해볼 수 있다.

A는 곰이 **그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믿는다(A believes that she *herself* is about to be attacked by a bear).

대용어가 선행어의 대상에 더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은, 대용어의 한 종류인 대명사의 역할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 예컨대 “그”(he/she)는 선행어가 비인간 생물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보를 알려주며, “그들”은 선행어가 다수의 인간들이라는 정보를 전달한다. 결국 꺾쇠표 ‘〈t〉’를 포함한 준지표사는 임의로 도입된 표현이 아니며, 오히려 개별 표현을 계승, 기억, 보존하는 우리의 회상적 정신 활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암시적으로 수행하던 언어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⁶⁾

이 장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브랜덤은 지표적 표현이 보편자와 단순 동일시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지표사가 매 사용마다 각기 다른 개별자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한편 그는 지표사의 성공적 사용이 언어-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를 통해 보장된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포착된 개별자가 정신의 회상을 통해 찰나를 넘어 보편성 속에서 보존되고 사용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지표사의 사용을 설명한다. 지표사의 성공적 사용은 지표사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그 내용이 상호주관적으로 소통 가능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해명된다. 이 두 가지 지점은 대용어에 관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증명된다.

46) 실로 브랜덤은 『정신현상학』 전반을 통틀어 헤겔의 독창적이고도 중대한 통찰 중 하나가 이러한 “회상적 합리성”(recollective rationality)에 대한 통찰이라고 지적한다. R. Brandom, *A Spirit of Trust*, 132쪽.

V. 결론

이제 브랜덤의 해석이 어떤 점에서 II장과 III장에서 논의된 해석들보다 설득력이 있는지가 명백하다. 대용어 이론 독법은 개별자 지시 불가능성 독법과 달리 헤겔에게 개별자와 보편자가 철저히 상호 착종되어 있다는 해석적 논점을 간과하지도 않으며, 외부 세계 회의론이라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를 부당하게 헤겔에게 귀속시키지도 않는다. 한편 브랜덤의 해석은 지시 이론적 독법처럼 언어와 실재의 이분법을 헤겔에게 귀속시키지도 않는다. 대용어 이론 독법은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헤겔의 핵심 논제와도 잘 부합하는 해석이다.

최근 영미철학에서 등장하여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분석적 헤겔주의는 국내에도 헤겔 연구자들과 분석철학 연구자들의 여러 논문을 통하여 소개 및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초점은 분석철학 내부에서 헤겔주의적이라 할 만한 논제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응용되는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분석적 헤겔주의는 ‘분석철학 내의 헤겔주의적 흐름’뿐만이 아니라 ‘헤겔 연구 내의 분석철학적 흐름’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지닌다. 헤겔 연구에서 등장하는 분석적 헤겔주의는 언어와 마음에 관한 정교한 개념적 분석 등 분석철학적인 기법들을 동원하여 헤겔의 텍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의 주장을 재구성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앞서 소개된 브랜덤이나 맥도웰 등 분석적 헤겔주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학자들은 헤겔의 저작들에 관한 새로운 논쟁적인 해석들을 제시함으로써 헤겔 연구 내에서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분석적 헤겔 연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실제 헤겔의 텍스트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본 논문이 이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데에 사소하게나마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 투고일: 2020. 10. 1. 심사완료일: 2020. 11. 30. 게재확정일: 2020. 11. 30.

참고문헌

- 김 현, 『신체화된 이성과 사유하는 몸—헤겔(G. W. F. Hegel) 사변철학에 대한 포이어바흐(L. Feuerbach)의 비판과 그의 ‘감성적 유물론을 중심으로—』, 『헤겔연구』 제44호, 한국헤겔학회, 2018.
- 비트겐슈타인, L.,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 책세상, 2006.
- 윤유석, 『표상주의, 변증법, 역사성—헤겔의 경험 개념에 근거한 표상주의 비판—』, 『철학사상』 제61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6.
- Brandom, R., *A Spirit of Trust: A Reading of Hegel's Phenomen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2019.
- Brandom, R.,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 Discursive Commitment*, Cambridge: Massachusetts 1994.
- DeVries, W., Hegel on Reference and Knowledge,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vol. 26, no. 2, 1988.
- Evans, G., Understanding Demonstratives, in: *Collected Papers*, ed. by Antonia Phillips, Oxford 1985.
- Feuerbach, L., Zur Kritik der Hegelschen Philosophie, in: *Philosophische Kritiken und Grundsätze. Sämtliche Werke 2*, hrsg. von Friedrich Jodl, Stuttgart 1959.
- Frege, G., On Sinn and Bedeutung, in: *The Frege Reader*, trans. by M. Black, ed. by M. Barney, Oxford 1997.
- Graeser, A., Zu Hegels Portrait der sinnlichen Gewißheit, in: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rsg. von Otto Pöggeler und Dietmar Köhler, 2006.
- Hamlyn, D. W., *Sensation and Perception: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Perception*, London 1961,
- Harris, H. S., *Hegel's Ladder I: The Pilgrimage of Reason*, Indianapolis 1997.
- Hegel, G. W. 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3, Frankfurt 1986.

- Hegel, G. W. F.,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5*, Frankfurt 1986.
- Hegel, G. W. F., *Wissenschaft der Logik I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6*, Frankfurt 1986.
- Hegel, G. W. F.,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8*, Frankfurt 1986.
- Houlgate, S., *The Opening of Hegel's Logic: From Being to Infinity*, West Lafayette: Indiana 2006.
- Inwood, M. J., *Hegel*, London 1983.
- Kaplan, D., Demonstratives: An Essay on the Semantics, Logic,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of Demonstratives and Other Indexicals, in: *Themes from Kaplan*, ed. by J. Almog, J. Perry and H. Wettstein, New York 1989.
- Löwith, K., Vermittlung und Unmittelbarkeit bei Hegel, Marx und Feuerbach, i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vol. 26, no. 1, 1972.
- Plumer, G., Hegel on Singular Demonstrative Reference, in: *The Southwest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11, no. 2, 1980.
- Russell, B.,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London 1972.
- Siep, L.,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 by Daniel Smith, Cambridge 2014.
- Soll, I., *An Introduction to Hegel's Metaphysics*, London 1969.
- Stern, R.,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to Hegel and the Phenomenology of Spirit*, London 2002.
- Westphal, K. R., Hegel's Phenomenological Method and Analysis of Consciousness, in: *The Blackwell Guide to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ed. by K. R. Westphal, London 2009.
- Wetzel, L., Types and Tokens,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by E.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8/entries/type-tokens/>, 2018. 최종 접속일: 2020.09.25.

<Abstarct>

Sense-Certainty and the Problem of Indexical Expressions

Kim, Ju Yong*

There are at least three interpretations that attempt to read from the Sense-Certainty Chapter a Hegelian theory of indexicals. First, the Impossibility of Singular Reference Reading understands Hegel as excluding in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any linguistic cognition of individuals. Second, the Theory of Reference Reading criticizes the first reading and interprets from Hegel the classical idea of direct reference theory. Third, Brandom's Anaphoric Theory Reading suggests an alternative explanation while still defending the possibility of knowledge of individuals in Hegel. I criticize the first two readings and argue that the third is the most exegetically and philosophically adequate interpretation. The first interpretation attempts to ascribe to Hegel a sort of skepticism, but this can be at most in a very restricted sense successful and the skepticism constructed in such a way is too trivial to refute Hegel's position. The second reading is more adequate in that it does not fall into the error that the first one committed, but is still flawed because it introduces a subject-object or mind-world dualism that Hegel denies. The third reading has great advantages compared to the first two readings in terms that it provides a suitable account of indexical knowledge on individuals while avoiding skepticism and dualism which arise in the former readings.

Key Words: Hegel, Sense-Certainty, Indexical, Brandom, reference

* Sogang University